

병무청, 4월 9일부터 17일까지 병역판정검사장 휴무

- 4월 9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휴무, 20일부터 정상 재개

- 병무청(청장 홍소영)은 오는 4월 9일(목)부터 4월 17일(금)까지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.
- 이번 휴무는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육기간에 맞추어 실시된다. 이 기간을 통해 각종 의료장비의 성능 점검, 전산 시스템 정비 및 시설물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.
- 신체검사 업무는 중단되지만, 병역처분변경원 등 민원서류 접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,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신체검사는 4월 20일(월)부터 재개한다.
- 병무청 관계자는 “휴무기간에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검사일자를 반드시 확인해달라”고 당부했다. <끝>

담당 부서	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	책임자	과 장	강진호 (042-481-2913)
		담당자	서기관	서혜연 (042-481-2918)